

# 신뢰를 바탕으로 일궈낸 안전 사업장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는 중화학업체들이 대거 입주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1975년 중유발전으로 가동을 시작한 이후 80년대에는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으로의 매각설까지 나돌았었다.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90년대 재가동 이후 석탄발전으로 전환도 피하면서 발전용량도 200MW, 300MW에서 각각 350MW로 증설하고 있다. 여수화력발전처가 약 40여 년의 역사 동안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황상연 처장의 노력이 크다. 1979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상당기간을 여수에서 근무했던 그에게 36년 동안 쌓아온 발전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취재 박병탁 기자 ppt@safety.or.kr

## 황상연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 처장



###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리더

황상연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놀랍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황 처장 자평보다는 존경어린 직원들의 전언에서 들어볼 수 있었다. 황 처장은 여수화력발전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의 업무스타일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직원들이 그만큼 본인 업무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직원들은 본인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 처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처장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 결정여부를 가린다는 것이 황 처장 업무 스타일의 핵심이다.

여수화력발전처의 안전관리도 황 처장의 이 같은 방침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안전관리는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이곳에서 안전관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업도 중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수화력발전처의 주관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안전그룹의 최락희 매니저는 “처장의 이러한 뒷받침 덕분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박종학 공사관리팀 과장 역시 “처장이 조직구성원들을 믿고 본인의 업무를 자율적인 판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록 힘을 실어준다”면서 “직원들도 처장의 업무 통찰력을 믿고 따른다”라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 체계적인 안전관리 '눈길'

현재 여수화력발전처에서는 2호기를 운영하는 동시에 1호기 공사도 같이 진행 중이다. 건설부문에 400-500명, 운용에 300여 명 정도로 약 700여 명의 인력이 여수화력발전처에서 움직이는 셈이다. 특히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건설 쪽은 안전사고 위험 노출 우려가 큰 만큼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황상연 처장은 안전통제센터를 구축해 본사와 협력사의 안전관리자가 유기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건설현장 모니터와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처장뿐만 아니라 팀장도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간단한 안전수칙 점검부터 위험 행동 적발까지 실시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곳 안전관리자들이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수시점검을 고려하면 매일 2-3종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 안전정책 디테일이 강화돼야

황 처장의 안전에 대한 생각은 디테일의 강조다. 때문에 최근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고 디테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과 같은 가전제품 사용 매뉴얼을 볼 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퍼스널컴퓨터 초기에 일본에서 들여온 프로그램 매뉴얼을 떠올리며 디테일하게 작성된 점을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각종 오피스프로그램은 따로 공들여 공부하지 않아도 매뉴얼만으로

도 충분히 사용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안전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장에서 안전 보호 장치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이 약하다는게 그의 주장을 방증한다.

### 기계는 생물, 계절에 따라 컨디션도 달라

황상연 처장은 기계 설비를 생물에 비유했다. 황 처장은 “작물이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다”며 “안전 역시 우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확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에서는 다양한 설비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문학적·철학적으로 표현해 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철근 구조물이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늘어나는 점을 그려보면 그럴 법하다. 이 때문에 황 처장은 직원들에게 “마치 농부들이 작물을 매일 점검하듯, 안전관리도 현장을 자주 찾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비를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했고 애정을 쏟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지막으로 황 처장은 안전을 행동양식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장을 비롯해 가정, 일상생활 등 안전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안전이 일상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여수화력발전처 임직원들은 수시로 안전 체험, 소방체험을 하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듯한 모습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에 대해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황상연 처장의 안전경영을 거울삼아 주변 현장들도 무재해 사업장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